

반디누리작업장 신축예산 확보

무주군, 국비 3억6천여만원 등 총 9억여원 투입 지상 2층 규모 작업장, 저온저장고, 활동실 조성

무주군이 군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반디누리작업장의 신축 국비 3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개원한 반디누리작업장은 무주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18명이 이곳에서 '반디 참두부', '반디 콩나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무주군은 2020년 1월부터 실시계획 및 건축을 시작해 연말까지 입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9억여 원을 투입해 518.1㎡(지상 2층)의 반디누리작업장을 조성한다. 1층에는 콩나물·두부 작업장, 위생실, 탈의실, 저온저장고, 원재료실, 2층에는 재활상담실과 집단활동실, 체험활동실 등의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무주군정 사회복지과 최동철 장애인

복지 팀장은 "시설이 오래되고 협소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이 부족해 근로 장애인들의 불편이 컸는데 신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 다행"이라며 "근로 장애인의 인권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또 식품 생산 공간인 만큼 HACCP 시설 기준에 맞춰 생산 설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반디누리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HACCP 인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학교 등 관내 기관은 물론, 인접 지역으로까지 납품을 확대시켜 장애인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년 연속 SNS 대상 '최우수상'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팬·주민과 실시간 소통

진안군은 16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초지자체 군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블로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후원한다. 매년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SNS) 운영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군은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수(CoSB)를 통한 정량평가(30%)와 전문가 평가(40%), 접수 기관·기업의

내부 전문가 평가(2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10%)에서 두루 좋은 점수를 얻어 2년 연속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트위터 등 5가지 SNS 채널을 통해 주민·팔로워들과 소통해왔다. 올해부터는 트위터 대신 온라인 정보 유통 시장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5대 채널에 포함시켰다. 군은 유튜브를 비롯한 5대 SNS 채널을 통해 진안고원의 아름다운 풍경, 여행, 지역문화, 축제 등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

책과 정보, 행정서비스는 물론 진안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숲과 계곡, 하천 등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재난·재해 발생 상황은 물론 기상 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익적 이벤트를 수시로 열어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딱딱한 팩트 위주의 정보 전달을 지양하고 시민을 사로잡기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흥미로운 이미지·영상 콘텐츠로 진안군 5대 SNS 채널을 꾸며가고 있다"며 "공익적이고 팬들에게 도움이 될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진안고원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마을기록 활동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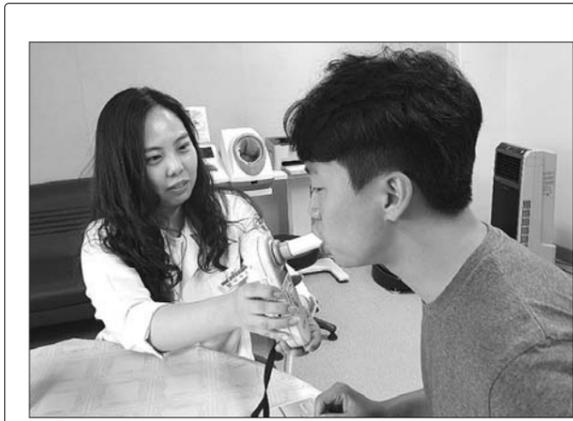
17일부터 마을기록학교 운영

장수군이 민간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장수군 마을기록 학교를 이달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 16일 장수군에 따르면 마을기록학교는 2019년 농촌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장수군의 정체성을 복원·유지·발전시키는 마을 아카이브(기록)를 완성하고, 마을기록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30여명이 참여한

다. 교육은 총 7강으로 1강은 한신대 이영남 교수의 '왜 마을 기록인가?', 2강 이형희 원장(마을문화기록연구원) '마을 기록의 이해'와 최서형 편집장(골목잡지 사이드)의 '마을기록 사례', 3강 김윤섭 사진작가의 '사진 아카이브', 4강 정성미 연구원(사) 무형문화연구원)의 '구술사관 무엇인가?', 5강 은정아 작가(EBS)의 구술인터뷰 글쓰기와 이형희 원장의 기록학교 워크숍1, 6·7강 이형희 원장의 기록학교 워크숍2,3 등으로 총 21시간 진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4H연합회 고구마 700Kg 기부

진안군 4H연합회(회장 유병석)는 최근 고구마 700Kg을 관내 사회복지협의회와 다문화 인보의집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고구마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지도하에 지난 4월부터 마련된 소재 과제활동 포장에서 4H 회원들과 청년 4H 회원들이 체험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정성들여 재배한 고구마다. 유병석 연합회장은 "우리 연합회 회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농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수확한 고구마 중 일부는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연말 학교 4H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무주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흡연자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관내 모범음식점 1천 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클리닉 등록하면 음식 값 할인

무주군, 관내 25개 모범음식점 1천원 할인 서비스

무주군은 무주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흡연자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관내 모범음식점 1천 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 금연등록자 음식점 이용 할인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동참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의도와 성공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금연등록자 본인과 금연등록 시 서포터로 지정한 1명에 대해 등록 후 6개월간 1천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감미경 과장은 "보건의료원에서 제작·발급한 금연등록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며 "주민들의 금연 실천을 돕는 기본 좋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금연등록자 음식점 이용 할인 서비스 추진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서병국), 모범음식점 영업주와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관내 모범음식

점 25곳(무주읍 13곳, 설천면 8곳, 안성면 2곳, 무풍면 1곳, 적상면 1곳) 모두가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참여 음식점에 대해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위생용품과, 할인업소 표지판 등을 제작·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해자 건강증진 팀장은 "모범음식점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참여 음식점이 많아지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금연 시도와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6개월 간 금연상담 서비스와 함께 금연보조제와 행동강화물질 등을 지원받게 되며, 등록-유지(3개월)-성공(6개월) 단계 별로 기념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단풍철 산지정화관리원 운영

진안군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산지정화관리원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마이산, 구봉산, 운장산 등 자연경관을 만끽하기 위해 진안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등산로나 계곡 등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산지정화관리원

정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산지정화관리원은 산림 내 쓰레기 수거활동 등 산지정화 활동과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불법행위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쓰레기 투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근절에 주민과 등산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진안군은 16일 지방세로 고민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은 납세자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안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진안군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이나 불만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

장수군치매안심센터가 지난 3월부터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치매약화 방지를 위한 '기억지킴이 교실' 쉼터가 큰 호응 속에 16일 마무리됐다. 장수군에 따르면 기억지킴이 교실은 전문적인 뇌운동 교재를 통해 현실인식, 회상치료, 기억력, 인지자극치료 등 인지활동과 노래 부르기, 율동하기 등 음악활동교실, 치매예방체조, 수공예활동 등 치매증상 약화방지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수공예 활동인 꽃잎 주머니 만들기, 장식 브로치와 한지로 과반·보석함 만들기는 가족들에게 선물까지 할 수 있어 가장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혔으며 작품을 완성해 가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를 거뒀다. 장수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해 쉼터 운영에 참여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드시고 있는 약의 복용 여부를 체크해 치매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AED(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해 위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관계자는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 부담 경감도를 줄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휴식에도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치매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지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장수군치매안심센터(350-267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